

작가 김기라의 작업은 보편성에 균열을 가하는 장치들 탓에 비판적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다소 예민한 정치·사회적 문제를 비롯해 자본주의의 폐단이나 편향된 이데올로기, 국가주의와 전체주의, 세계화의 부작용과 같은 내용과 함께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의 인간 심리마저 비판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때로는 보편적 위선을 선으로 포장하는 데 익숙한 우리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나 충분히 체감 가능한 인식의 장을 통해 복잡다단한 사회를 다른 시각으로 엿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영상·설치·퍼포먼스·사진·콜라주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조형방식으로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예술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적대성과 편가르기에 대한 고찰을 담은 'Super Heavy weight' (2001), 강요된

동일성의 문제를 건드려 정형화·제도화된 보편적 관념과 표준을 지목한 '조우-친구 되기 프로젝트와 그들의 미래' (2006), 소비를 조장하는 자본주의와 덧없는 욕망을 역설적으로 그린 '현대정물화-셀리벨리 캔디가 있는 정물' (2009) 등은 모두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을 지적하며 주변인의 문제를 여러 각도로 다뤄온 미술 언어를 확장시킨 작품들이다.

이 중 서구적 관점으로 소위 동양적 혹은 한국적이라는 사물들을 모아 놓은 '편집증 환자로서의 비밀정원' (2008)은 식민주의 잔재에서 비롯된 문화적 간극에 대한 경험을 풀어내는 동시에 동양사마저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고발한 설치작품이다. 무작위로 수집한 도자기, 분재, 감시 카메라, 조각상, 가면, 액자, 스피커, 작은 모니터, 조명 등의 물건은 동양인에겐 지



김기라, 편집증 환자로서의 비밀정원, 혼합재료, 설치, 2008

극히 무국적적인, 그저 평범한 사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서양인들은 이를 너무 쉽게 동양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규정한다. 소소한 것조차 문화적 전통이라는

관념적·추상적인 명분 아래 비범함으로 둔갑시킨다.

김기라는 '편집증 환자로서의 비밀정원'으로 경계와 차이를 끊임없이 재생산

현대사회의 모순과 편견에 대한 저항

하는 서양의 의도와 시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보여준다. 동양의 정체성을 조건화·정당화하려는 시도가 꽤나 허구적인 것에 불과함을 개념적으로 해체하고 재조립한다. 나아가 침탈과 약탈, 관리와 규약을 통한 제국주의적 역사관이 여전히 유효함을 지적하며 동양에 대한 서양의 우월성, 고정된 인식과 태도 등을 비판한다. 물론 여기에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 식민지를 만들고 식민지에서 침탈한 역사를 진열이라는 방식으로 전시하는 영국 대영 박물관 방식의 왜곡된 인식에 대한 비판이 들어 있다.

엄연히 구분되는 문화를 통합, 동일화시키는 일은 사실 편집광적인 징후에 불과함을 유별나지 않은 물건으로 제시한 이 작품은 작가에게 2000년대 후반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여전히 식민주의적 잔재를 안고 있는 문화적 차이를 재조명했

다는 사실에서 보다 폭 넓은 가치를 획득한다. 또 현대미술의 핵심 담론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그의 미적 개념을 한층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 김기라는 우리 생활에서 표준이란 잣대는 누가 만들어내고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넘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갖는 경제적·문화적·심리적 위치, 개인의 욕망 등으로 관심을 증폭시킨다. 근래 집중하고 있는 공동선 혹은 공동체에 관한 물음도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문화와 역사, 삶을 공유하는 지점에서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갈등과 분노보다 예술을 통해 해결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 사회 속 예술의 가치 실현에 대한 고민 등에 힘입어 그의 작업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미술평론가·월간 경향아티클 편집장